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요소 확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Description Elements for Audio-visual Archives

남영준(Young-Joon Nam)**, 문정현(Jung-Hyun Moon)***

【초 록】

정보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기록매체가 출현함에 따라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량과 이용률이 급증하였으나,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부수적인 가치를 지닌 별도의 기록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청각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 형태의 종류와 보관방법 등의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관리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시청각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각기록물 기술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기관별 메타데이터 요소와 기관 간 통합관리 가능성을 파악하며, 각 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시청각기록물의 관리·검색·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대한 효과를 제안하고, 시청각기록물의 통합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시청각자료, 시청각기록물,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통합관리

【Abstract】

The output and usage rate of audio-visual materials have sharply increased as the information industry advances and diverse archives became available. However, the awareness of the audio-visual archives are more of a separate record with collateral value. The organizations that hold these materials have very weak system of the various areas such as the categories and archiving

methods. Moreover, the management system varies among the organizations, so the users face difficulty retrieving and utilizing the audio-visual material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the synchronized management of audio-visual archives by comparing the descriptive elements of the audio-visual archives in internal key agencies. The study thereb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metadata element of the organizations and that of synchronized management to propose the effect of the use of management, retrieval and service of efficient AV materials. The study also proposes the improvement of descriptive element of metadata.

【Keywords】

Audio-visual Materials, Audio-visual Archives, Metadata, Description Elements, Integrated Management

1. 서 론

인간의 고대 선조들은 동굴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였다. 이후 점토판, 파피루스 등을 거쳐 종이의 발명으로 정보전달의 양이 급증되었다. 이렇듯 정보전달 매체의 형태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도 정보산업 발달의 영향으로 정보를 저장·보존·전달하는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와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는 단순히 종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모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yj@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wunggir103@naver.com) (공동저자)

든 기록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에 수록·저장하고 활용한다. 특히 마이크로필름, 영화필름, 비디오 CD, DVD 등과 같은 시청각 매체의 다양한 발전과 증가는 시청각 기록물 생산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중요 기록물로서가 아닌, 부수적인 가치를 지닌 별도의 기록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시청각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조차 그 형태의 종류와 기록방법, 소장현황 등의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청각 기록물의 유형과 이용방법이 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종이 기록물과 다른 관리 지침과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기록관, 박물관 등 많은 기관에서 시청각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확장으로 시청각 기록물의 다기능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자료를 기관별로 따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전문단체와 기관의 시청각 기록물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사진·영상·음성 기록물의 기술규칙과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었지만,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실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기록관의 입장에서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거나(이철평 2004, 주영주 1996), 일부 시청각 기록물 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창순 2007, 이영배 2004, 현문수 2002), 상호참조에 대한 분석이 제한된 것(문정현 2009)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시청각 자료의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에서 개발되었거나, 개정된 상태이다. 즉, 표준적인 기준보다 각 기관별 관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규칙과 기록물로서 시청각 자료에 대한 각 기관의 목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통합 방법과 가능성, 실질적인 통합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의 특성에 종속되지 않는 시청각 기록물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청각 기록물의 통합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 기술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청각 기록물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시청각 기록물의 기관별 메타데이터 요소와 기관간 통합관리 가능성을 파악하며, 각 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검색·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대한 효과를 제안한다.

2. 시청각 기록물의 정의 및 유형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법¹⁾에서는 기록물의 범주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크게 구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록물법의 적용 범위의 애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서 그에 관련한 범위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을 '기록정보자료'로 규정하여, 기록물을 단순한 매체로 보지 않고 매체에 축적된 하나의 정보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사전적 정의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미국 아키비스트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용어집²⁾ 시청각 기록물은 음성과 그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세스와 제재들은 사운드와 이미지를 캡처, 기록, 전송, 또는 재현하는 데 사용된다. 시청각 기록물은 도상 기록물, 필름 기록물, 사진 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로 포맷에 관계없이 시각과 청각 형태의 모든 기록물을 의미한다. 'Audiovisual'은 텍스트 자료와 비텍스트로 작성된 아카이브 자료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 기록학 용어 사전(한국기록학회 2008, 153-154)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ited 2010. 10. 10]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295>.

매체에 상관없이 소리나 영상을 획득하거나 전송·재생산한 기록을 말한다. 사진, 필름류, 녹음,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 위키피디아³⁾

시청각기록물은 음성과 시각적 구성요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사용하여 문서를 참조한다.

2.2 법률적 정의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중략)로 표현하고 있어, 시청각기록물의 종류와 범주를 법에서 나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업무편람에서 시청각기록물을 영상 또는 음향기록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몸짓 및 목소리 톤 등 당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성을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에 수록한 것으로 사진·필름·오디오·비디오·영화필름·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2.3 시청각기록물의 유형

시청각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과 ‘디지털 시청각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국가기록원 2007)에 따른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의 유형별 매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

얼에 따른 디지털 시청각기록물의 유형별 매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디지털 시청각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종 류	매 체
자기매체	플로피디스크, 집드라이브, 디지털자기테이프, HDD 및 자기매체로 구성된 스토리지 등
광 매 체	LD, CD류, DVD류, HD-DVD류, MOD 및 광매체로 구성된 스토리지 등
기 타	플래시메모리(USB메모리, 메모리 카드 등), SSD 및 이들로 구성된 스토리지 등

2.4 시청각기록물의 상호참조

목록은 저자나 서명, 주제명과 같은 데이터 요소를 접근점으로 하여, 특정 저작을 검색하고, 관련된 문헌을 연결하여 이들 문헌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특정 저작은 상이한 문헌이나 CD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발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자나 서명의 상이한 형식들을 동등한 접근점으로 처리하고, 관련 저작 간의 서지적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에서 많은 시청각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목록 하는 방법과 기술요소 등이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관 간의 시청각기록물 관리·검색·상호호환 등이 어려운 상태다. 박치홍 등(2008)은 개인사진을 기록물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표준화의 제한점을 설명하여 상호호환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상호참조(cross-reference)는 특정 접근점의 이형(異形)들 간의 관계로, 특정 저작의 기술요소 중에서 접근점으로 주로 사용하는 저자나 서명의 상이한 형식들을 연결함으로써 관련 저작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표 1>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구 분	종 류	매 체
사진·필름류	사 진	인화사진, 사진건판, 흑백사진, 컬러사진 등
	필 림	음화필름, 양화필름, 의료용 X-선 필름, 흑백·컬러필름, 마이크로필름 등
	영화필름	오리지널 네가티브, 마스터 포지티브, 듀프 네가티브, 프린트, 사운드 등
녹음·영상류	슬라이드	영상·비영상 슬라이드
	오 디 오	녹음테이프(카세트, 릴, 카트리지, DAT 등), 음반(SP, LP 등의 광매체), 녹음 필름 등
	비 디 오	비디오테이프(Betacam, VHS, U-matic 등), 비디오 CD, DVD, 영화필름 등

3) WIKIPEDIA. [cited 2010. 10. 10] <http://en.wikipedia.org/wiki/Audio_visual>.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각 기관의 표준과 실제 사용 중인 기술요소들을 각각 맵핑시켜, 서로 상이한 명칭을 지닌 동일한 기술요소들을 상호 참조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들 간의 네이밍 통합과 서지적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여러 연구에 있었다. 윤세진과 오경묵(2002)은 INDECS 메타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된 ONIX와 기존의 MARC과 Dublin Core를 비교하여 각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위한 상호참조는 기존의 객체들을 표현한 메타데이터의 연결맵으로써,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기술요소 가운데 이형동리적인 기술요소에서 효과적이다.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상호참조를 통해 서로 상이한 명칭이 연계되고, 서지관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시청각기록물의 특성까지 연결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시청각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 유형, 보관방법, 뛰어난 정보전달 기능 등 시청각기록물의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상호참조를 통해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간의 상호참조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술요소 비교를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시청각기록물을 통합·관리하기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확장된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요하다.

3. 시청각기록물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비교

3.1 시청각기록물의 주요 국제 표준 기술요소 비교

기록물로서 시청각 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대표 메타데이터로써 더블린 코어(도서관)와 ISAD(G)(기록관), CDWA(박물관)의 시청각 자료 관련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분석하였다. <표 3>은 각 기관별 대표 메타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DC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도서관 소장 객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라고 판단하였다. CDWA는 기록물에 대한 박물관적 관점에서 관리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관리체계라고 판단하였다. ISAD(G)는 일반적인 기록물관리체계의 포괄적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 영역의 기술요소의 공통점은 모두 시청각기록물을 기술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은 어렵다는 것이다. 더블린 코어와 ISAD(G)는 일반자료를 비롯한 모든 기록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한 시청각

<표 3> 기관유형별 기술요소 비교

영역	유형	더블린 코어	ISAD(G)	CDWA
식별영역	Identifier	Identifier	Reference code	Inscriptions/Marks
	Title	Title	Title	Title or Names
	Date	Date	Date	
			Level of description	Classification
	Type		Extent and medium of the unit of description(quantity, bulk, or size)	Object/Work Measurement
배경영역	Creator	Creator	Name of creator	Creation
	Publisher		Administrative/Biographical history	Styles/Periods/Groups/Movements
	Contributor			
			Archival history	Ownership/Collection History
	Source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or transfer	
내용과 구조영역				Current Location
	Subject		Scope and content	subject Matter
	Description			
			Appraisal, destruction and scheduling information	Conservation/Treatment History
			Accruals	
			System of arrangement	
Coverage			Context	
			Physical Description	

영역	유형	더블린 코어	ISAD(G)	CDWA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Right		Conditions governing access	Copyright/Restriction
			Conditions governing reproduction	
	Language		Language/scripts of material	
	Forma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requirements	Condition/Examination History Materials and Techniques Orientation/Arrangement
			Finding aids	
연관자료영역	Relation		Existence and location of originals	
			Existence and location of copies	
			Related units of description	State Related Works Related Visual Documentation
			Publication note	Related Textual References
주기영역			Note	Facture
				Edition
				Exhibition/Loan History
				Critical Responses
				Description Note
기술통제영역			Archivist's Note	Cataloging History
			Rules or Conventions	
			Date of descriptions	Cataloging History

기록물의 기술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CDWA는 예술작품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갖고 있으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세 개의 주요 메타데이터 요소를 ISAD(G)2에서 제시한 7개 영역을 기준으로 더블린 코어, ISAD(G), CDWA의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하면, 7개의 영역 중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의 5가지 영역에서만 공통된 기술요소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식별영역의 경우, 일자를 제외한 모든 기술요소들이 공통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즉, 기록물의 기술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기록물의 출처, 열람 및 이용조건, 연관자료 등이 공통요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상의 메타데이터 포맷들은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을 기술에 따른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시청각기록물 기술을 위한 몇 가지 기술요소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관유형별 기술요소들을 비교하면, 식별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기술요소들이 거의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을 비롯한 여러 기록물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때,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는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자신의 지식 욕구가 충족된다면, 기관에서 어떤 메타데이터와 기술요소를 사용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정보 검색 및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유형별 대표 표준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기술요소들로는 시청각기록물을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갖는다.

3.2 국내 기관별 시청각기록물 기술요소 비교

국내 주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그 기술요소를 분석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기술하고 입력하는 방식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 간 상호호환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이용자의 검색의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각 대표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포맷의 선정 기준은 시청각기록물 기술요소의 표준화 작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에서

개발한 포맷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분류표준을 연구 포맷으로 정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정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은 크게 '현용·준현용 기록물용 메타데이터', '비현용 기록물용 메타데이터', '영구기록물 메타데이터'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용·준현용 기록물은 현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생산된 장소나, 관련 기록관리실, 또는 중간단계 서고 등에서 관리한다. 비현용 기록물은 현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기록물로 보통 보존기록관에서 관리하거나 폐기처리 된다. 영구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연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 중 영구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비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다른 두 표준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2008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의 시청각기록물 기술요소를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필수입력요소'이다. 왜냐하면, 필수요소는 여러 기관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영역별 요소명칭'이다. 세 기관의 메타데이터 포맷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요소도 다르며, 그 명칭도 상이하다. 따라서 동일한 영역에서 기술요소의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해 ISAD(G)2에서 제시한 7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① 필수입력요소 비교

〈표 4〉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필수입력요소들은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였지만, 한 가지 기술요

〈표 4〉 각 기관의 필수입력요소 비교

영역	유형	통합서지용 KORMARC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유물분류표준
식별영역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참조코드	기술계층	소장구분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023 출판시도서목록제어번호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유물번호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090 자관 청구기호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제목	명칭	
	260 발행, 배포, 간사사항	일자	문화재 지정 일자	
	300 형태사항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수량 수량단위 크기1(실측 부위) 크기2(실측치) 장르	
	340 물리적 매체 유형			
배경영역	1XX 기본표목	생산자명		작자/제작처
	7XX 부출표목			
		행정연혁/개인이력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문화재 지정 구분	
			특징 국적/시대	
추가설명영역			재질 용도·기능	
기술통제영역		기술담당자		
		기술일자		

소에 일치되는 다른 기관의 기술요소 중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으며 의미가 모호한 요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구기록물의 기술규칙 중 ‘참조코드’와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에 해당되는 KORMARC과 유물분류표준의 요소들은 각각 약 5가지 정도의 중복된 요소들이 있었다. 이는 기술에 있어 핵심요소만을 선정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을 특정한 기준없이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간에 일치하지 않은 요소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각 기관과 기술규칙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보존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행본을 비롯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학위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기술규칙 역시 다양하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활용보다는 보존의 측면을 더 강조한다. 그리고 단행본형태의 일반 책자보다는 행정업무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반 종이기록물 — 공공·사(私)기록물 — 이나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의 특수형태 기록물을 수집한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기록물의 제목, 생산자 이외에도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배경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을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록관과 도서관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물관은 각종 유물을 포함하여 고서, 탕화, 미술품 등과 이들과 관계있는 시청각기록물도 수집한다. 이러한 박물관의 특성 때문에 기술규칙과 기술요소에는 유물의 재질이나 시대, 용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규칙과 기술요소도 달라진다.

각 국가기관의 메타데이터 작성 수준은 다양한 차이가 있다. 단, 자원의 확인과 식별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들 — 표제·저작사항, 발행·배포사항, 형태사항 등 — 은 모든 포맷에서 필수요소로 선정되어 있어, 이들 요소의 범용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② 영역별 요소명칭 비교

필수입력요소를 비교한 결과 해당 영역을 표기하는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동일한 의미로 기술된 요소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특히 ‘표제·저작자·발행·배포·형태사항’ 등의 기술요소들은 모든 메타데이터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기술에 포함되어 있지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각 포맷별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검색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값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관 간의 통합관리가 시행되었을 때 관리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본 항에서는 기술요소들이 각 기술규칙에서 어떠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ISAD(G)2가 제시한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는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정리된 기술요소들이다.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기술요소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통합서지용 KORMARC과 유물분류표준의 경우에는 기술요소들의 양이 광범위하여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기술요소들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영역별 기술요소는 다른 포맷에 비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기술할 시에는 ‘제목’은 본제목, 부제목, 대등제목, 기타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또 ‘생산자’는 시청각기록물의 제작자, 녹음자, 작곡가, 작사가, 가수, 감독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일자’는 촬영일자, 녹음일자, 방송일자, 제작일자, 평가·폐기·처리 일자, 기술일자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검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요소는 서명과 저자, 출판지 등이다. 이 기술요소는 검색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된 요소이다. 하지만 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의 명칭은 모두 다르다. 위의 표에서 ‘서명’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기술요소 명은 국가기록원은 제목, 국립중앙도서관은 245 \$a, 국립중앙박물관은 명칭이다. ‘저자’에 해당되는 기술요소는 국가기록원은 생산자명,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자명(또는 단체명), 국립중앙박물관은 작자/제작처이다. 이처럼 각 포맷의 여러 기술요소들 중 요소의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한 영역 안에 여러 개의 기술요소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용자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검색할 시에 최소한 1번 이상의 검색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검색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통합관리 정책에도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통일된 기술명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통합서지용 KORMARC과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유물분류표준이다.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기록물 전체를 기술하기 위해 개발된 메타데이

〈표 5〉 각 기관의 영역별 기술요소 명칭 비교

영역	유형	통합서지용 KORMARC	연구기록물 기술규칙	유물분류표준
식별영역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참조코드	소장구분
		017 저작권등록번호		유물번호
		018 저작권료부호		문화재 지정 호수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090 자관 청구기호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제목	명칭	
	260 발행, 배포, 간사사항	일자	문화재 지정 일자	
			발굴일자	
	입수일자			
등록일자				
이동일자				
351 자료의 구조와 배열	기술계층			
300 형태사항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수량		
		수량단위		
크기1(실측 부위)				
크기2(실측치)				
장르				
340 물리적 매체 유형	형태			
배경영역	1XX 기본표목 7XX 부출표목	생산자명	작자/제작처	
		545 전기적 또는 역사적 데이터	행정연혁/개인이력	
	561 소유권 및 소장내력 주기	기록물 이력	문화재 지정 구분 국적/시대	
	541 입수처주기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입수처 출토지	
	내용과 구조영역	505 내용주기	범위와 내용	내용
520 요약 등 주기				
583 보존처리주기		평가, 폐기, 처리일정정보	보존 처리 기간 보존 처리 내용	
		추가수집 예상기록물		
		정리체계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6XX 주제명부출표목	색인어	주제	
	506 이용제한주기	열람조건		
	540 이용과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	복제조건		
	546 언어주기	자료의 언어		
	340 물리적 매체 유형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조건	재질	
	538 시스템사항에 관한 주기			
	842 물리적 형태의 문장형 기술			
555 누가색인/검색도구주기	검색보조도구			
관련자료영역	534 원본주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533 복제주기	사본의 존재와 위치	보험 관계 기록	
	544 기록물의 기타 소재 관계	관련 기술단위		
	581 참고정보원 주기	출판물 설명		
추가설명영역	5XX 주기	추가설명(주기)	참고자료	
			특징	
			문양	
			장식	
			용도	
기술통계영역	500 일반주기	기술담당자	자료 기록자 자료 입력자	
		규칙과 협약		
	583 보존처리주기	기술일자		

터 포맷이며, 유물분류표준은 유물을 정리하기 위한 포맷이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이 어렵다. 통합서지용 KORMARC은 기존의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포맷이다.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의 기술요소는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기술이 용이하다. 하지만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비도서자료의 기술은 기술요소의 통·폐합으로 기존의 비도서용 KORMARC을 사용했을 때보다 혼란이 가중되었다. 즉, 이 메타데이터 포맷들은 일반자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을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조사한 기관유형별 표준 메타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분석결과, 모든 기관의 메타데이터 포맷은 시청각기록물을 위한 기술요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통합서지용 KORMARC과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경우에는 시청각기록물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입력 규칙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제시된 입력 요소들이 시청각기록물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물분류표준의 경우에는 박물관의 유물을 주 대상으로 분류기준과 요소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시청각기록물을 기술하는 데 있어 세 기관 중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청각기록물의 사용과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청각기록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4. 시청각기록물의 통합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개선안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은 매체와 목적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들 문화정보유산이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도 동시에 간과되고 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사회에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선별된 문화정보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개발, 메타정보를 기입·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기관별 생산 기록물이 하나로 통합관리 되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이용자는 하나의 통합검색화면을 통해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 방안 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4.1 공통입력요소

국내 주요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는 식별, 배경, 내용, 열람과 이용조건, 관련자료 등의 영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각 기관 간 메타데이터 작성 수준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인을 위한 식별영역과 배경영역의 기술요소들은 모든 포맷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선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관유형별 대표 표준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한 후, 국내 주요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을 대상으로 각각의 기술요소와 참조요소의 명칭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을 비교한 것과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비교한 것의 차이가 없었다. 즉,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와 표준 메타데이터의 기술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용이하지만, 기관 간의 상호호환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세 기관의 모든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선정하였다.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의 서지정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정보 등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성이 높은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데이터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범용적인 기술요소를 최소 수준의 입력요소로 선정한다. 이는 기존의 기술요소를 최대한 수용하여 시스템 간의 연동이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내·외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소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와 표준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함께 참조하여 국제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최소 수준의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근거로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

〈표 6〉 최소 수준의 공통입력요소

영역	기술요소	참조요소
식별영역	식별기호(identifier)	참조코드, 유물번호, 관리번호 등
	표제(title)	제목, 표제, 명칭 등
	연도(date)	일자, 제작연도, 발행연도, 발굴일자 등
	유형(type)	기록물 유형, 장르 등
배경영역	발행자(publisher)	저자, 작가, 저작자, 제작자, 생산자 등
	출처(source)	입수처, 수집출처, 출토지 등
내용과 구조영역	상태(condition)	보존처리, 평가·폐기 상태 등
	주제(subject)	주제, 색인어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표현형식(format)	수량, 크기, 형태, 시스템 조건, 매체유형 등

한 최소 수준의 공통입력요소를 선정하였다.

〈표 6〉은 최소 수준의 공통입력요소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영역은 ISAD(G)2에서 제시한 7가지 영역 중 필수기술요소가 포함된 영역만을 범주화하였다. 참조요소는 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의 기술요소 명칭들을 나열한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의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된 명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 메타데이터 포맷의 기술요소 명칭을 중심으로 기술요소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은 참조요소로 정리하였다. 요소들을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별영역은 자원의 확인과 식별을 위한 기술요소를 포함한다. 7가지 영역 중 세 기관의 공통된 기술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설명범주이다. 기술요소로 식별기호, 표제, 연도, 유형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모든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둘째, 배경영역은 기록물의 출처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영역으로 발행자와 출처를 기술요소로 선정하였다. 발행자와 출처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때 많이 쓰는 검색어휘 중 하나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기술요소이다.

셋째, 내용과 구조영역은 자료의 주제와 정리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영역으로, 상태와 주제를 기술요소로 선정하였다. 상태요소의 경우, 세 기관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공통 기술요소이지만, 주제(색인어)요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에서만 기술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주제요소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분류표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콘텐츠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넷째, 열람과 이용조건영역은 기록물의 이용수준과 유형, 조건에 관한 기술요소로 표현형식만을 기술요소로

선정하였다. 표현형식이라 함은 자료의 크기와 수량, 물리적 매체 유형, 시스템 사항의 조건 등을 일컫는 말로 모든 메타데이터 포맷에서 기술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상 이용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표 6〉의 공통입력요소들은 기관 간의 통합관리와 상호호환을 위하여 최소한의 단위로 선정한 요소들이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요소의 명칭은 표준 메타데이터 포맷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통입력요소와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조요소를 연결시켜준다면, 이용자 검색의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4.2 선택입력요소

시청각 기록물의 공통입력요소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관별 고유 특성이 강조되고 활용되는 요소이다. 또 이용자의 검색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비해 선택입력요소는 상호호환보다는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로 기관에서 입력이 필요할 시에만 기술한다. 따라서 선택입력요소는 기관이나 시청각기록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공통입력요소에 비해 필수성이 떨어진다.

선택입력요소의 선정기준은 공통입력요소의 선정기준과 동일하며, 3장에서 비교한 기관별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중 필수입력요소를 제외한 것이다.

〈표 7〉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선택입력요소를 정리한 표이다. 공통입력요소와 마찬가지로 ISAD(G)2의 7가지 영역을 범주로 해당 요소들을 기술하였다. 요소들을 범

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별영역 중 기술계층을 선택입력요소로 선정하였다. 기술계층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351 자료의 구조와 배열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물분류표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요소지만, 기록물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 필요한 요소라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둘째, 배경영역의 권한요소는 자료의 소유권 및 소장내력 등에 관한 정보로 세 기관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이다. 공통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요소로 선정된 이유는 세 기관에서 동일하게 필수요소가 아닌 선

택요소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물분류표준에서도 요소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권한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권한표시도 강화되고 있다.

셋째, 내용과 구조영역의 기술과 내용범위 요소는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과 범위, 구조에 대한 사항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두 기술요소 모두 유물분류표준에서 선정하고 있지 않은 요소지만, 기록물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직접 열람을 하지 않고도 기록물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표 7> 최소 수준의 선택입력요소

영역	기술요소	참조요소
식별영역	기술계층(level of description)	기술계층, 자료의 구조와 배열 등
배경영역	권한(right)	소유권 및 소장내력, 문화재 지정 구분 등
내용과 구조영역	기술(description)	내용, 요약주기 등
	내용범위(coverage)	범위, 구조 등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이용(use)	열람, 이용제한, 시스템 사항, 접근제한 등
	복제(reproduction)	이용, 복제의 제한 등
	언어(language)	자료의 언어, 언어주기 등
관련자료영역	위치정보(location)	원본의 위치, 사본의 위치, 현재의 위치 등
	관련정보(relation)	참고자료, 관련문헌 등
추가설명영역	주기(note)	특징, 문양, 장식, 재질, 용도, 기능 등
기술통제영역	아키비스트(archivist)	기술담당자, 자료 기록자, 자료 입력자 등

<표 8> 실제 적용 기술 예

식별기호(identifier) *	CET0025758
표제(title) *	이승만대통령훈장수여
연도(date) *	1959년 6월 9일
유형(type) *	사진/필름
발행자(publisher) *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출처(source) *	청와대
상태(condition)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보존 중
주제(subject) *	이승만대통령, 훈장수여
표현형식(format) *	시청각기록물 - 사진/필름류 - 흑백사진
기술계층(level of description)	기록물건
권한(right)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기술(description)	이승만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기록물군은 국정홍보처이며, 기록물계열은 정부기록 및 국내외홍보영상 제작이다. 약 592,893건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용(use)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으며,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열람 신청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정보(location)	국가기록원 대전 서고
관련정보(relation)	이승만

* 공통입력요소

넷째, 열람과 이용조건영역에는 이용, 복제, 언어요소를 선정하였다. 언어요소는 영구기록물 기술규칙과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만 선정하고 있고, 유물분류표준에서는 거의 선정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선택요소로 선정하였다. 이용과 복제요소는 시청각기록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과 이용조건에 관련된 요소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선택적 요소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관련자료 영역에서는 위치정보요소와 관련정보요소를 선택입력요소로 선정하였다. 현재 기록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으며, 사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등 기록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 또한 참고문헌과 같은 관련자료의 기술을 통해 다양하고 넓은 지식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선택입력요소로 선정하였다.

여섯째, 추가설명영역에서는 기록물의 특징, 용도, 기능 등을 기술할 수 있는 주기요소를 선정하였다. 모든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항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기술할 수 있도록 선택요소로 선정하였다.

일곱째, 기술통제영역의 아키비스트 기술요소는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접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요소로 선정하였다.

〈표 6〉과 〈표 7〉에서 제시된 최소 수준의 공통·선택입력요소를 실제 시청각기록물에 적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 대상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기록물 중 사진/필름자료에 해당되는 기록물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5. 결론

기록물에 대하여 국내 주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들은 대체로 기술요소의 양이 방대하게 선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기술요소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이용자들은 시청각기록물을 기술하는데 있어 제목, 저자, 일자 등 일정한 기술요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술요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술요소의 종류와 명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상호호환도 어려운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유형별 표준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기관별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시청각기록물 통합관리 시 필요한 공통입력요소와 선택입력요소를 선정, 제시하였다. DC와 CDWA, ISAD(G)를 선정한 것은 각 분야별 표준들이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세부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각기록물을 관리를 위한 기록물의 관리(기술요소포함)요소 가운데 기록물일반(G:General)요소는 ISAD(G)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표현을 기준으로 하고, 시청각 자료가 갖는 박물관적과 미술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박물관 관리체계와 CDWA를 선정·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각기록물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나 각 기관의 전문협회를 중심으로 한 시청각기록물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단체나 몇몇의 개인이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세 기관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의 검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포맷에 대한 맵핑테이블을 제공한다. 3장에서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규칙과 기술요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다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술요소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더구나 기술요소의 명칭을 모두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표제'로 사용되는 것이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서는 '제목'으로, 유물분류표준에서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는지에 상관 없이 모든 자료가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정리해놓은 맵핑테이블이 필요하다.

셋째, 시청각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해 모든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장의 1절과 2절에서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입력요소와 선택입력요소를 제시하였다. 공통입력요소의 경우에

는 각 포맷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거나, 역할 비중이 큰 기술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택입력요소의 선정은 각 포맷에서 모두 선정하지 않고, 기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채택하였다. 대영역으로 식별영역을 비롯하여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관련자료영역, 추가설명영역, 기술통제영역 등 7개 영역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요소로써 기술계층(level of description)을 비롯하여 권한(right), 기술(description), 내용범위(coverage), 이용(use), 복제(reproduction), 언어(language), 위치정보(location), 관련정보(relation), 주기(note), 아키비스트(archivist) 등 11개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각 영역은 기관별 특성과 시청각기록물이 갖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참조요소도 제안하였다. 이 기술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요소의 양과 영역을 점차 넓혀간다면, 모든 기관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기술요소들이 도출되어 관리자들에게 기술의 포용성과 범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통입력요소와 선택입력요소는 시청각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한 최소 수준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요소들이 완벽한 형식과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기술요소들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기술요소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 기관의 공통된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세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국가 표준을 개발하거나, 최소한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를 만든다면, 이용자의 검색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도 용이해질 것이다. 단,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포맷은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과도 상호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관리 방안은 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과 각 기관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일은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인식과 표준 메타데이터 개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기관의 관리와 서비스 질은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청각기록물의 통합관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기관 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법에는 공동의 관심주제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나 공동의 연구프로젝트의 수행 등이 있다. 세 기관 모두 정보서비스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체계적 배출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앙 및 지방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제도적이며 법률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연구는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에서 관리자 체로서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기록관의 통합수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따라서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적용에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국가지식포털과 같은 통합관리모형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가기록원. 2008.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현용·준현용 기록물용』.
- 국가기록원. 2007.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
- 국가기록원. 2007. 『시청각기록물 업무편람』.
- 국립중앙도서관. 200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시지용-』.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
- 김창호. 2007. 디지털 정보의 메타데이터 포맷의 예와 민속자료에의 적용. 『생활문화연구』, (20): 23-50.
- 라이옥, 김포옥. 2006. 행정박물관 자료의 정리기술 표현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37-155.
- 문정현. 2009.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박진희. 2005.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치홍, 허희진, 안나. 2008. 사진기록물의 정리 및 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57-274.
- 윤세진, 오경목. 2002. 메타데이터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2): 276-301.
- 이소연. 2002. 『ISAD(G)를 적용한 한국 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이양숙. 1999.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영배. 2004. 『사진기록물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이철평. 2004. 시청각기록물 목록기술규칙에 관한 소고. 『기록보존』, (17): 61-87.
- 이창순. 2007. 『영상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 조윤희. 2003. 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 포맷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135-152.
- 주영주. 1996. 국가 시청각기록물 관리. 『기록보존』, (9): 7-20.
- 주영주. 1989. 국가기록물로서의 시청각자료. 『기록보존』, (3): 41-86.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현문수. 2002. 『음성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Gerts, Janet and Stout, Leon J. 1989. The MARC Archival and Manuscripts Control(AMC) Format: A New Direction in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4): 5-25.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2: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s Archival Description 2nd edition*.
- ISO. 2006. *ISO 23081-1: 20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Process - Metadata for Records. Part 1: Principles*.
- ISO. 2001. *ISO 15489-1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Shepherd, Elizabeth and Smith, Charlotte. 2000. The Application of ISAD(G) to the Description of Archival Dataset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1: 55-86.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ited 2010.8.1].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295>.
- WIKIPEDIA. [cited 2010.8.1]. <http://en.wikipedia.org/wiki/Audio_visual>.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